

양주시 전지역 420대 CCTV설치한다



양주시는 12월 말에 수면지역 및 여간여모포구역 등 88개소에 420대여 양형 CCTV 설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둠 및 여정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발생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경각적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면지역 32개소, 여간여모포구의 41개소, 능어터 및 노이골원 22개소 등을 100개소에 CCTV를 설치했다.

가례리 상능 포란 대우 할당시계 우곡가례리의 경우 130만 원소의 가례리 20대를 설치했으며, 주요 교차로에는 20만원의 300만 원소의 가례리 18대가 설치되어 범죄예방의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어 범죄예방이 기대 된다. 지역 사업은 총 1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1월 발단공사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했으며, 8개월이 더 사업기간을 거쳐 구축했고, 사업에 접근을 위해 선연구 및 신속공무, 적정표 등을 적용해 사업자를 선정했 으며, 절감된 예산으로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한 여간여모포구역 7개소에는 차량전조를 적용해 차량회를 있으며, 일차에 드문 능어터 4개소에는 LED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했고,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CBS시스템(범죄예방모니터링) 및 동영상분석프로그램과 연동해 양주시 전지역 CCTV를 성능에 높 수 있도록 구축했다.

지자체장 관심제자자들은 여러 양주시의 범죄예방 CCTV 구축사업이 '양주시가 강력히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와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재산 보호 및 여간여와 이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적 예방 등 절감된 도시의 커수준으로 차우에길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